



2 대학

서울배움터
단대선거 당선자 만나



45 주제 기획

양배운터
정경토론의 이상세계



6 사회

농민의 아들이 본
농촌 현실



8 문화

취업에도 영향을 끼치는
외의외주주의에 대하여

양배움터 선거 앞두고 선거운동 치열해

용인 단대, 이번 주 선거처리

서울배움터 38대 총학생회 선거가 이번 주로 다가온 가운데 양 총학생회본부는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19일(수) 인문과학관 앞 분수대에서 양 후보의 합동유세에 12시부터 1시30분 동안 진행됐다. 기호 2번 측은 시작 한 연설에서 2번 후보는 "우리는 한층더 주장을 펼치지 않음으로써 비문과외를 지향한다"라고 말하고 "외대 발전을 위해서는 동문과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호 1번 측은 "내년 외대발전 50주년을 맞이해 도약하는 젊은 외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평화외대의 교류를 통해 한층더를 개척해 통일을 준비하는 대학이 되자"고 연설했다.

한편, 용인배움터 25대 총학생회 선거가 하루 남은 가운데 양 후보는 후보자의 뜻을 끌어들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9일

(수) 학생회관 앞에서 합동연설회가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됐다. 기호 1번 측은 "무엇이 좋은지 저희에게 말씀해주시고, 저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전 학생들뿐입니다"라고 강조하며 "학생들과 같이 만든 공약이다. 공약이 잘 지켜지는지 아니지 학생들에게 알려 주겠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호 2번 측은 "세만전 준비 1차 기획안을 마련한 것은 세만전을 잘 치르기 위해 철저한 준비한 것이다. 우리는 준비된 총학생회"라고 강조했다.

서울배움터는 지난 18일(화), 19일(수) 양일간 동안배움터 학생회장 선거에서 이봉훈(중국어)이 당선됐다. 노천극장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당선인인 181명 중 719명이 투표한 가운데 당선 614표를 얻었다. 한편, 서울배움터 학생회장 선거는 정희창에 소표원(노어 01)이,

부회장에 이석환(독일어 00)군이 당선됐다. 19일(수)과 20일(목) 인문과학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선거 결과 재적인원 1818명 중 786명이 투표했으며 찬성 696표를 얻어 선출됐다. 시화대 학생회장 선거는 고현호(행정 01)군이 당선됐다. 서울배움터와 같은 기간에 사회과학관 앞에서 진행된 재적인원 674명 중 354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324표를 얻었다.

법대 학생회장 후보에는 기호 1번 박종민(99)군과 기호 2번 최유준(02)군이 출마했다. 사법대 학생회장 후보에는 추성호(한국어교육 02)군이 단독으로 출마했다. 선거 날짜는 법대와 사법대 모두 20일(수)과 21일(목) 실시된다. 한편, 상경대 학생회장 선거는 25일(화), 26일(수) 후보 추천 및 등록을 받으며 선거는 다음 달 2일(수)과 4일(목)에 진행된다.

용인배움터 인문대 학생회장 후보에는 최호남(철학 99)군이 단독 출마했다. 서울배움터 학생회장 후보는 이종선(영어 98)씨가 출마했다.

인문대, 경상대, 서유림대, 동안배움터의 투표일은 25일(화)부터 27일(목)까지 진행된다. 동안배움터의 경상대 후보는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자연대 후보는 정세진(화학 99)군이 출마했으며 정보산업공과대 후보자는 정희호(정보통신 97)군이 등록했다. 자연대, 정보산업공과대 투표는 28일(수), 29일(목) 양일간 진행된다.

동안배움터 학생회장 후보자에는 최태경(무마 나이어 98)군이 단독 출마했다. 선거는 24일(월)과 25일(화) 양일간 진행된다. 총학생회장 정후보에는 정희호(서유림·불어 02)가 등록을 했다. 투표는 25일(화)부터 27일(목)까지 3일간 진행된다. 동아리연합회 회장에는 하태현(자연·화학 99)군이 출마했다. 선거는 25일(화)과 26일(수) 양일간 투표가 실시된다.

고정영 기자

sha272@hann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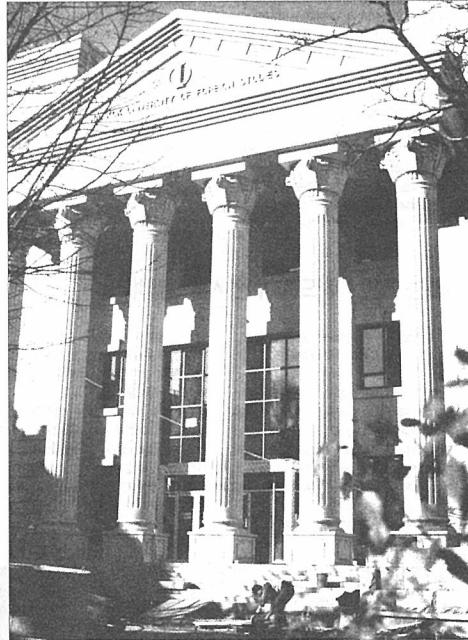
교협, 재단 권고안에 이견 보여

교수협의회(교협)가 재정의 기여자가 포함된 법인권고안에 여전히 이견을 표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월) '본협의 신축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라는 제목의 권고안을 원고 교수협의회와 피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동원학원에 보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정권고안을 통해 교육부가 제안한 5:3:1비율을 권유하고 있다. 교협에서 제안한 2:1의 재정의 기여에 대해 매년 50억원 이상의 재정의 기여를 하고 오고자 법원의 결정에 참여할 것을 약속한 기업 또는 독자가 대상으로 추가토 선입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교협 반대법(법학)교수는 "새로운 권고안에 대해 반대한다. 정이사 제9에 재정의 기여자가 포함되어 있어"라고 거듭 주장했다. 37대 총학생회장 유복재(사회·신문방송 96)군은 "처음에 구상했던 법안이 아니지만 조

숙한 재단 정상화를 위해 따르겠다. 다만, 지금 관산이사제제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협의를 보지 못하면 또다시 관산이사제제로 갈 수밖에 없다. 교협의 반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본관 앞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천막농성을 시작한 유복재군은 "재단공정화를 실현하기 위한 이사회의 의지가 부족한 것에 대한 항의"라며 "학생들에게 진행상황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에 공영재단을 꼭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며 "공영재단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문제 어떤 이사진으로 구성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각 단대에 학생회장 중심으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진 기자 shin18@hannail.net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서울배움터 신 본관의 모습이다.

양배움터 정경토론회 열려

양배움터 후보자 합동 정경토론회가 지난 20일(목) 열렸다. >관련기사 4. 5면
지난 20일 오후 4시 서울배움터 학생회장 1층 학생회관에서 인문대학의가 주최하는 '38대 총학생회 후보자 정경 토론회'가 열렸다. 정경토론회는 △합작사 소계 △기조발언 △패널질문 △자유 토론 △당첨자 질문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를 본 문운재(서유림·이태리어 00)장은 "양 후보의 대담이 충실했고 무난하게 진행된 정경 토론회였다"고 평가했다.

투표하지마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입니까?

양배움터 총학생회 투표
서울배움터 - 11월 25 - 26일
용인배움터 - 11월 25 - 26 - 27일

전체 학생 85% '투표할 것'

양배움터 학생 중 85% 이상이 오는 총학생회 선거에서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오는 25일부터 진행되는 총학생회선거와 관련 양배움터 각 학부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서울배움터에서는 오는 총학생회 선거 참여여부를 묻는 질문에 85%(170명)가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으며 15%(30명)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투표에 불참하는 이유로는 '학생회에 대한 기대가 없어 누가 당선되어도 상관없다'가 57%(17명)로 가장 높은 이유를 차지했고 '참여하는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23%(7명)나 있었다. 또한, '관심은 있지만 투표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의견이 20%(6명)로 나타났다. 투표하겠다는 85%(170명) 중 27%(46명)를 제외한 73%(124명)가 '지지하는 선분을 이미 정했다'고 응답했다. 선분에 대한 고민 없이 정했다는 이유로 4%(5명)로 조사됐다. 한편, '이 사람이 선거운동을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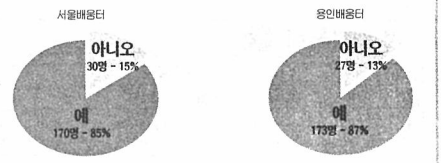
서' 선분을 지지한다는 의견도 9%(11명)이나 나타났다.

용인배움터에서는 87%(173명)가 총학생회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으며, 13%(26명)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해 선거참여율이 서울배움터보다 2%(3명) 높게 조사됐다.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참여하는 의미가 없다'가 48%(12명)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으며 '학생회에 대한 기대가 없어 누가 당선되어도 상관없다'는 의견이 40%(10명) 다음을 차지했다. 그리고 '관심은 있지만 투표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의견도 22%(3명)이나 있었다. '지지를 선분을 정했다'에 대한 질문에 73%(127명)가 정했다고 응답했고, 27%(46명)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선분 지지이유로는 '선분의 모토나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서'가 51%(65명)로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선분의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가 19%(24명)로 다음을 차지했다. 또한 '후보자가 마음에 들어서' 선분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15%(19명), '선분의 정치적 입장이 마음에 들어서'라는 이유로 13%(16명) 있었으며 2%(3명)는 '이 사람이 선거운동을 해서'라고 응답했다.

김종운 기자

oodae01@hannail.net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 투표할 것입니까?



용인가속사 식당에서 위조식권 발견돼

지난 13일 용인배움터 기숙사(모현학사) 식당에서 위조 식권이 발견됐다. 식당측이 9월1부터 11월 초 까지 732명의 기숙사생들에게 배부한 식권은 25,000장이지만 위수권 식권을 집계한 결과, 9월 식권 200여장이 초과된 25,800장으로 집계된 것이다. 육안으로 구분되지 않아 위수권 식권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위조 사실이 드러난 만큼 식당 측은 기존 식권에 사용되던 앞면 용지를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무늬와 재질의 용

지로 바꾸고 식권에 은박지를 삽입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다. 더불어서 9. 10일에 학생들에게 배부한 식권을 11월 식권으로 교환해주며, 다들일부터 이전에 재발한 식권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후속권 영양사 허영애씨는 "일부 학생으로 인해 생긴 불미스러운 일로 서로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 모든 사건으로 식재비가 초과돼 많은 기숙사 학생들이 피해를 본 셈"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정책중심 선거돼야

▲양배움터 총학생회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용인배움터 총학생회 선거가 온갖 추측과 비방이 난무하는 과열상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용인배움터 한 과는 총학생회 후보자의 과거전력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한 후보가 반대측 후보에게 대학당국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파악을 나서기도 했다. 다시 해당 후보자는 과거전력에 대한 문제제기에 반박하는 등 논란이 되풀이되고있는 상황이다.

▲선거운동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은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해져 학생들 사이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용인배움터 선거가 양 후보의 공약을 비교하고 어느 후보가 더 나은지, 이성적 판단에 기초한 정책선거보다는 자칫 근거가 부족한 추측과 비방에 근거한 혼탁선거로 흐를지 걱정된다.

▲이번 대일수록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공정선거, 정책선거를 보장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본연의 역할인 만큼 위원회가 중점을 잡고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선거운동기간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은 그 나름대로 진상이 규명되어 해결되지만 확실한 방법으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 이 사건을 가지고 유행어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추측과 비방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 어떤 사람이 우리의 대표자로 적합한지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학교의 향후 종립을 결정하게 될 재단문제를 비롯하여 학내에는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를 올바른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느 후보가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번 선거에 다같이 동참하자.

편집장

제3회 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대회 입상한 최원본

아람

“가능성에 대한 열린 자세가 중요”



“한·러 국제관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주최로 열린 3회 전국대학생 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대회에서 3위로 입상한 최원본(동양학·노어 96)은 말한다.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네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한 이번 대회에서 그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카스피해 연안 지역 에너지 개발을 둘러싼 정치, 경제학적 접근’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김진태(동양학·노어 96)군과 공동 발표했다.

최 군은 준비기간이 짧아 힘들었지만 석유와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관해 국제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해 볼 수 있어 흥미로운 기회였다고 전했다.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러시아 지역 경제에 매력을 느끼게 됐다는 그는 올해 졸업할 후 3년 이내 본고 지역학 대학원에 원서 접수할 예정이다.

“외국에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그 지역에 대한 연구가 이뤄질 때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책 또한 놓이지는 것이라 생각해요”라며 경제학과 TSR(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연결, 사할린과 이르쿠츠크 지역의 석유와 가스 등 한·러의 경제협력과 관련해 더 공부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학부시절 그는 ‘외대 시베리아 탐험대’를 결성해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9,288km를 거치며 페르미크, 이르쿠츠크, 노보시비르스크, 예카테린부르크 등 총 8개 도시 방문을 통해 시베리아 횡단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사막한 북동쪽에서 인접되어 시베리아에 대해 앞으로 개발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재인식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였어요”라고 말하며 활동기에 각오하고 떠난 처음과는 달리 러시아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돌아오는 여행이었다고 회고했다.

학부시절 그는 ‘외대 시베리아 탐험대’를 결성해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9,288km를 거치며 페르미크, 이르쿠츠크, 노보시비르스크, 예카테린부르크 등 총 8개 도시 방문을 통해 시베리아 횡단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자세로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학생이 주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학생활을 마음껏 즐기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라며 후배들 또한 취업직장에 매몰되지 않고 경험을 바탕으로 깊게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것으로서 대학생활을 마음껏 즐기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라며 후배들 또한 취업직장에 매몰되지 않고 경험을 바탕으로 깊게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것으로서 대학생활을 마음껏 즐기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러시아 지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무역인이 되고 싶다는 그의 말에서 한·러 교류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그의 패기를 엿볼 수 있었다.

전영희 수습기자
mumo101@hotmail.com

서울배움터 단체 학생회장 당선자

동양대 당선된 이봉훈



“학생에게 신뢰받는 학생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2004년 동양대 학생회장 당선자 이봉훈(동양·중국어 02)은 말한다.

그는 과학실험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학생회에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선거 운동을 하는 동안 그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다고 했다. “강의실에 들어가 열심히 유세를 했는데 학생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뭔가 이상해서 학생에게 물었다. 동양대에 학생 수장이 아니냐고” 말하는 그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진다고 한다.

학생회장에 당선됐을 때 그는 같이 고생한 선거운동원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03년 중국어과 학생회장인 오광근(국어)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다. “우리 학교의 특성상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많은데 그들이 학생회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점이 아쉬워요. 동양대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는 학생회를 만들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그는 “중국유학생들의 외의 연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양대 당선된 소호원



“2000년대 학우가 한 가족이 되면 좋겠어요.” 2004년 서양대에 학생회장 당선자 소호원(서양·노어 01)은 말한다.

그는 “노년과 함께 할 때도 많았지만 학생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한결같은 것이 늘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수) 동아리분과 회장선거

학생분과회장 박은진(동양·일본어 02)군, 봉사분과회장 박한나(사회·신문방송 02)장, 체육분과회장 정재선(법·법학 90)군, 예기분과회장 권성태(서양·서반어 90)군이 각각 동아리분과회장으로 당선됐다. 동아리연합회(동원) 선거는 지난 19일(수) 학생회관 건물 앞에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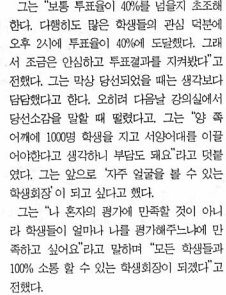
총 투표수 30표 중 찬성 29표와 반대 1표로 예기분과회장으로 당선된 권 군은 “우리 학교에는 미술대학이 없지만 예기분과에서 이를 대신하여 아름다운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 투표수 54표 중 찬성 50표, 반대 4표로 학술분과회장으로 뽑힌 이 군은 “동원일을 하는 것이 처음이지만 배우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박준원(동양·중국어 01)군과 함께 후보로 올라와 총투표수 81표 중 45표로 체육분과회장으로 뽑힌 정 군은 “내년에는 외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건물을 신축하면 체육관 부지도 확보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체육분과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이들과 가고 싶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또한 봉사분과회장으로 당선된 박 양은 “그 동안 봉사분과에 학교측의 지원이 부족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적극적으로 보상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사회대 당선된 고현준



“선거기간동안 강의실 방문을 할 때 의외로 학생들이 내 말을 귀를 기울여주시지 않았었다. 예상치 못한 학생들의 자세가 고맙겠다”고 전했다.

사회대(인문)은 토론문제를 정착시키고 싶다는 그는 “각 과회장과 함께 미리 1년 계획을 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새터민비문해 학회 해 나갔습니다”라고 꼼꼼한 모습을 보였다.

이태리어과 학생회장 채송하당선

채송하(02)장이 이태리어과 학생회장에 당선됐다.

지난 21일(금) 치러진 이태리어과 학생회장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한 채송하(02)장은 전체 115표 중 77표가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92%(찬성 73표, 반대 4표)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채송하(02)장은 “모든 이태리어과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영어 연극 등을 발전시켜서 과 학생회를 활발히 하겠다”고 밝혔다.

비나리 정기공연 오는 25일 예정

국악동아리 비나리의 정기공연이 오는 25일(화) 늦은 6시에 용인배움터 후속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박은진(동양·일본어 02)군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악에 직접 관심을 갖고 공연을 관람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접하지는 않는 편이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 음악의 좋은 점을 느끼고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회장 박은진(서양·영어 02)군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악에 직접 관심을 갖고 공연을 관람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접하지는 않는 편이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 음악의 좋은 점을 느끼고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회장 박은진(서양·영어 02)군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악에 직접 관심을 갖고 공연을 관람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접하지는 않는 편이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 음악의 좋은 점을 느끼고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민속극과 ‘흥부네 박 터졌네’ 공연

용인배움터 민속극과 ‘흥부네 박 터졌네’ 공연이 오는 25일(화) 늦은 6시에 용인배움터 후속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박은진(동양·일본어 02)군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악에 직접 관심을 갖고 공연을 관람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접하지는 않는 편이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 음악의 좋은 점을 느끼고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박은진(동양·일본어 02)군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악에 직접 관심을 갖고 공연을 관람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접하지는 않는 편이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 음악의 좋은 점을 느끼고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박은진(동양·일본어 02)군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악에 직접 관심을 갖고 공연을 관람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접하지는 않는 편이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 음악의 좋은 점을 느끼고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슬랩업, 정기공연 오는 25일

합창동아리 슬랩업의 정기공연이 오는 25일(화) 늦은 6시에 용인배움터 자체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한때만 내·외에서 선보였던 유령 곡의 연주와 직접 동아리연합회인 안무한 것을 다시 보여주며 학생들과 춤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다. 또 공연 티켓의

반호를 주춤 상장을 주는 행사도 마련했다.

회장 최홍수(경상대·경제학 02)군은 “많은 학생들이 춤을 보는 것은 좋아하지만 직접 배워 춤을 춘다는 점이 어려웠다. 춤을 좋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배울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며 춤에 대해 친근감이 생기는 지리가 되기를 소망했다.

서울배움터 단체 학생회장 선거

영어 26일-27일(토) 후보: 장·박지현(00), 부·유성현(02)

노어 26일(토) 후보: 장·유영근(00), 부·최두승(03)

이태리어 26일(토) 후보: 장·정·정·정(00), 부·정·정·정(00)

태국어 26일(토) 후보: 장·정·정·정(00), 부·정·정·정(00)

용인배움터 단체 학생회장 선거

무역 25일-27일(토) 후보: 장·정·정·정(00), 부·정·정·정(00)

정보통계 26일-27일(토) 후보: 장·정·정·정(00), 부·정·정·정(00)

화학 26일(토) 후보: 장·정·정·정(00), 부·정·정·정(00)

전자공학 26일(토) 후보: 장·정·정·정(00), 부·정·정·정(00)

환경공학 26일(토) 후보: 장·정·정·정(00), 부·정·정·정(00)

생물공학 26일(토) 후보: 장·정·정·정(00), 부·정·정·정(00)

정보통신공학 26일(토) 후보: 장·정·정·정(00), 부·정·정·정(00)

디지털정보공학 26일(토) 후보: 장·정·정·정(00), 부·정·정·정(00)

산업정보공학 26일(토) 후보: 장·정·정·정(00), 부·정·정·정(00)

플랜터 25일-27일(토) 후보: 장·정·정·정(00), 부·정·정·정(00)

항공영어 24일-26일(토) 후보: 장·정·정·정(00), 부·정·정·정(00)

영어 25일-27일(토) 후보: 장·정·정·정(00), 부·정·정·정(00)

불어 24일-26일(토) 후보: 장·정·정·정(00), 부·정·정·정(00)

아랍어 25일-27일(토) 후보: 장·정·정·정(00), 부·정·정·정(00)

이열찬!

박은진 기자 pehi206@hanmail.net

서우회전 24일부터 용인학생회관 전시실에서

24일부터 28일(금)까지 다섯동안 서우회관에서 서우회전 전시회가 열린다. 전시회에서는 서우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시회에서는 서우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시회에서는 서우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는 전통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현상이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서우회관 전시회는 전통을 되찾고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현상이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서우회관 전시회는 전통을 되찾고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현상이 많이 볼 수 있다.

25일(화) ‘맥박’ 정기공연 ‘그린하우스’ 주최 행사

서울배움터 삼정계원 노래방 ‘맥박’이 131.4M 라는 주제로 오는 25일(화) 오후 5시 30분에 인문과학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인 정기공연에 참가한다. 이번 공연에는 ‘맥박’이 131.4M 라는 주제로 오는 25일(화) 오후 5시 30분에 인문과학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인 정기공연에 참가한다. 이번 공연에는 ‘맥박’이 131.4M 라는 주제로 오는 25일(화) 오후 5시 30분에 인문과학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인 정기공연에 참가한다.

오는 24일(월)부터 26일(수)까지 서울배움터 동양대 ‘그린하우스’ 주최로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전담자 및 무용에 사할을 교환하는 행사가 펼쳐진다. 이번 행사에서는 행사에 참가한 학생 중 1명에게 추첨을 통해 ‘가짜본전선’이 증정된다. “그린하우스” 회장 서우회(서양·독일어 97)군은 “행사는 일반 내부보다 20대 많은 젊은 층을 아우르는 유망한 내부로 만들어진다. 흥미를 야기하는 것이 곧 수업을 보충하는 길이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생활을 돕는 마음이 커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4.5

2003년 11월 24일 842호

선거특집

서울배움터 38대 총학생회 후보 출마자 정경토론회

양 선본 '재단공영화' 대한 입장 엇갈려

기호 1번 - 민주적 개혁적인 재단이사회 구성해야

기호 2번 - 동문·재정적 기여자 포함해야

서울배움터 38대 총학생회 후보자 정경토론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보좌기회 공동주최로 학생회관 1층 휴게실에서 열렸다. △참석자 소개 △양 선본 기조 발언 △패널질의 △발행객질문 △상호질의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37대 총학생회장 유복재(사상·신문방송 96)군의 기록을 진행했으며 외대학부, 외대교육방송국, 교직원지원위원회, 디 아가스에서 제반을 맡았다.

37대 총학생회 평가

지난 37대 총학생회에 대해 2번 후보는 "한 단계 진전된 모습을 보였지만 학생들에게 다가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1번 후보는 "우리 학생회의 가능성을 엿본 학생회였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두 선본이 엇갈리는 평가를 했다.

재단공영화

특히, 재단공영화에 대해 양측은 확연히 차이점을 보였다. 1번 후보는 "37대 총학생회의 재단공영화 방안을 고수하는 입장"이라고 말한 것에 비해 2번 후보는 "동문중심의 재단 구성이 왜이러한 재정이여자가 있어야 한다"고 복 제단문제에 대해 인식을 달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충관과 학생운동

또한, 양 후보들은 '현충관'에 대한 생각도 달랐다. 2번 후보는 "총학생회장에 당선될 경우 현충관을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보적인 학생운동이 꼭 운동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보수의 진보가 공존하는 형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2번 후보는 "현충관에서는 왜 남만 정부에 반대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남만 정부에서 삼십여년"이라며 현충관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1번 후보는 "모두가 공존하는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면서 굳이 현충관만을 배척하는 이유는 모르겠다"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외대생의 58.5%가 '총학생회가 사회적 사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외대학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들은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에 2번 후보는 "총학생회는 학내복

합"며 근거없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고 등록금 투쟁이 일회성에 그칠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어디로 쓰여지는지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며 한양대의 경우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등록금 인상



기호 1번 후보인 박종호(사상·내일인도어 00)



기호 2번 후보인 김철민(사상·외어 97)



기호 1번 후보인 김철민(사상·외어 97)



기호 2번 후보인 김철민(사상·외어 97)

지, 수업의 질 개선 등 학내사안을 기본적으로 하되 대학생으로써 가져야 할 사회 비판 자세는 가져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투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1번 후보 역시 "누구나 할 수 있고 공경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투쟁

매년 봄이 되면 연례행사처럼 불거지는 등록금 투쟁에 대해 양 후보에게 물었다. 2번 후보는 "비운동권은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를 지니한 대표적인 예라고 밝혔다. 이에 1번 후보는 "한양대는 학생들의 동의없는 등록금 책정을 한 뒤 학생들이 많은 반발을 샀다. 철저히 조사한 뒤 발언했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1번 후보는 "재단이 정상화되면 등록금 인상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 학교는 현금이 없을 뿐이지 재단에 자원은 많다고 전했다.

학생자치기구

최근 동아리 및 학생회와 같은 학생자치 기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줄어들어 따라

저조해지는 활동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2번 후보는 "동아리와 소모임 등을 지원해 집단 해체를 막겠다"고 대답해 "과학생회와 그 외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대답한 1번 후보와 큰 입장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사석화

이러 도서관 사석화 방지 방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2번 후보는 "사석화 하는 사람들에게 1-2회 경고조치를 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전했다. 1번 후보는 "도서관학생위원회의 문제를 함께 모색하고 있다. 특히 1월부터 전자책시스템이 들어온다고 한다. 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정리 진단 후 학생들과의 공청회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여성문제

외부패널로 참가한 여성학 위원회의 학내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기본적인 관점을 묻는 질문에 1번 후보는 "여성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지 못했다"며 대학사의 내에서부터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여성학위원회와 함께 많이 고민하고 배워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2번 후보는 "고대성폭행이 심하다고 한다"며 여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37대 총학생회의 여성공약에 대한 평가와 여성들을 위한 공약"을 묻는 질문에 2번 후보는 "여성들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다. 총학생회 신하에 여성들을 설치하여 이 문제는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1번 후보는 "학내 공론화가 많이 부족했다. 여성취업을 위한 취업특강도 준비하고 있다"며 여성학 위원회와 함께 논의하여 일을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1번 후보는 "재단이 정상화되면 등록금 인상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 학교는 현금이 없을 뿐이지 재단에 자원은 많다고 전했다.



서울배움터 정경토론회 이모저모

지난 20일(목) 학생회관 1층 학생휴게실에는 15대 언론보좌기회 주관의 '38대 총학생회장 후보자 합동 정경토론회'가 열렸다. 평소와는 다르게 선거에 대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후보자들의 발언을 듣기 위해 학생휴게실 뒤편까지 많은 학생들이 서서 듣는 열의를 보였다.

대학에 들어와서 계속 정경토론회에 참석했다는 강정규(통상·미언어 00)군은 "올해 정경토론회는 지난번보다 참여가 많은 것 같다. 공감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대경당처럼 넓은 공간에서 했으면 좀 더 많은 학생이 참여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2번 후보는 재단 문제 같은 경우 의견에서 활동 이후 자료를 아직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반면 1번 후보는 지난 총학생회 선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1번 후보 선거본부위원장이 조화영(사회·행정 96)군은 "지금까지 본 정경토론회 중 학생들의 참여가 가장 좋았다"고 평가하며 "포괄적인 질문이 많았고 예상되는 질문이 많았다. 반면 정·부후보가 발언을 끝고루 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2번 후보측 발언에 대해 그는 "우리와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한 발언이 많았다"고 전했다.

2번 후보 선거본부위원장이 김홍일(경영·경영 96)군은 "양 후보가 외대 발전에 관한 공약을 논의한 것은 긍정적인 것"이라면서 "선거 준비를 하며 만든 공약에 대해 충분히 말한 기회였다"고 전했다. 1번 후보측 발언에 대해 그는 "서로 많이 고민하고 열심히 말한 것 같다. 한층 관련 발언을 했을 때 진지하게 토론에 임했다"고 평가했다.

패널로 참가한 여성학위원회의 김유리(사상·영어 97)군은 "양 후보가 여성관련 공약은 많이 미비한 것 같다. 또한 2번 후보의 총학생회기구를 단일화하자는 공약은 자치기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며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패널의 재질문이나 추가질문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기호 1번 총학생회장 후보 박종호(사상·내일인도어 00)군은 "시간이 부족해서 할 이야기를 더 못한 점이 아쉽다. 질문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있었다면 좀 더 대답을 잘 했을 것"이라면서 "견해를 펼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경선이라 학생들의 관심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기호 2번 총학생회장 후보 유복재(사상·영어 97)군은 "재무적인 복지공약을 발언할 시간을 주지 않아 아쉬웠다"며 "학생들의 분위기가 진지했으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기 좋았다. 선거 승리를 떠나 이번 토론회로 학생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사회를 본 유복재(사회·신문방송 96)군은 "서로의 생각의 차이나 공통점을 알게 된 뜻깊은 자리였다. 시간이 모자란 것은 아쉽지만 토론회와 원활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강경진 기자

shini18@hanmail.net

고창영 기자

dha272@hanmail.net

사이버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교수)

(영어학과 학생)

외대와 SK가 만났습니다!

외국어의 명문과 글로벌 기업이 만났습니다
「사이버외대」에서 큰 미래를 펼쳐십시오!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수준높은 교육 컨텐트를, 글로벌 기업 SK가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제, 직장이나 가정에서 "사이버외대"로 들어오시면, 명문사학에서만 가능한 최고의 교육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외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미래를 위해 도전하십시오! 사이버외대는 믿을 수 있는 선택입니다.

사이버외국어대학교
www.c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추구하는 사이버외대는 -

- 사이버외대의 졸업생은 외대 중문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 외국대학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합니다.
- Tutor를 통해 개인지도 학습기회를 제공합니다. • 대학원 외국유학 등 진학을 지원합니다.
- 도서관, 캠퍼스 등 다양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등 캠퍼스 활동에 충실한 대학생활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양배울터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한다



용인배움터 25대 총학생회 후보 출마자 정견토론회

선택! 민주적 학생회 혹은 준비된 학생회

- ▲ 사회자 : 언론협의회 의장 문은주
- ▲ 패널 : 외대박사 김용훈
디 아가사 김규영
교직원협의회 박혜진
- ▲ 곳 : 용인배움터 후북관 식당
- ▲ 때 : 11월 20일(목)

(24대 총학생회 평가)

24대 총학생회의 공약과 중점적으로 추진된 사업 중 **절된 점과 잘못된 점에 대해** 말해달라

기호 1번 윤태호후보(이하 1번 윤): 대동제와 같은 문화예술분야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회성에 그친 것과 연예인을 불러 돈을 많이 낭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를 이끌어가는 손발이 되었다.

2번 윤: 비민주적인 학생회를 원하는 학생은 없다. 준비된 총학생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적인 것은 당연한 것이다.

윤후보에게 묻겠다. 1번 측 총학생회는 03년 서울대 총학과 비슷한 형태를 일하는 것인가?

총학생회 임무부터가 진 율바른 총학생회의 상을 위해 타학과 사려를 많이 찾아왔다. 결국 의의를 거쳐 우리가 표방하는 것에 가장 비슷한 것을 학내 모든 정치적 조직을 아우르는 형태로 어느 한 정파를 표방하지 않았던 서울대 총학생회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벤치마킹하게 됐다.



기호 1번 총후보 윤태호(정보선입금·정보통신국)

양 정 후보는 올 한해 단체 학생회장이었다. 스스로에 대해 평가를 내려달라

1번 윤: 공대체전과 학술제 등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해왔다. 특히 민속소리꾼 것은 과장을 증정한 것이다. (입부보한 거담에) 학술제를 마지막까지 하지 못해서 아쉽다.

2번 윤: 해오름식 학생들 이름의유기기를 약속했고 1700명 다 의무지 못했지만 600명 정도 외웠다. 많이 노력했고 책임지고자 했다.

24대 총학생회장은 한총련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을 결의하면서 학생들의 의사수렴과 설명없이 먼저 결정한 후 학생들에게 의사를 묻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양 정후보 모두 중앙언론위원회와 한시점으로 이것에 대해 평가해달라

2번 윤: 총학생회는 별개의 조직이 아니다. 중운위 한명으로 책임지고자 했다. 잘못했지만 양산물 책임지고자 심도했다.

1번 윤: 공대 일선 학생들이 흠뻑을 반대했지만 중운위로써 학생들의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한 점 인정한다. 사과드린다.

(총학생회의 상연역)

양 후보들은 윤바른 총학생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번 윤: 민주적인 학생회이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의사수렴방식이 필요하다. 기존의 학생회는 그렇지 못했다.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

것이다.

1번 윤후보는 등록금투쟁의 세부계획을 말해달라

등록금투쟁은 재단문제와 함께 가야 한다. 재단문제를 먼저 학생들에게 알리겠다. 그리고 총투표를 통해 어떠한 제재도 반드시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겠다.

서울배움터 총학에서 재단문제에 대해 5:3:1로 결정했다. 두 후보에선 이 사항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

2번 윤: 5:3:1에 동의한다. 5명 중 3명은 교육부추진, 나머지 두명은 총장과 총동문회에서 1명씩 추천, 그리고 3명은 교수, 학생, 직원의 추천, 나머지 1명은 구제단 인사로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서울배움터 총학과 뜻을 같이 한다.

1번 윤: 현재 용인배움터는 재단이사추진권 한조가 없다. 5명 중 학생이 추천할 수 있는 참여부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24대 총학은 재단문제를 포기한 상황이었다. 성명서 발표로 끝났다. 그나마 성명서 및 명이나 봤을지 의문이다. 재단문제에 대해 용인배움터 학생들은 잘 모른다. 현 상태를 검증하겠다. 그리고 서울배움터 총학과 만나서 해결점, 공유점을 찾겠다.

1번 윤후보에게 묻겠다. '매개 식사에 적정량의 금액을 산출해 지원한다'라고 공약에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문제는 적정금이다. 짚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어릴 수 없다. 맛이 떨어질때는 값도 싸야 하는데 현재는 그것도 아니다.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생협)와 함께 싸우겠다.

2번 윤후보에게 묻겠다. 공약집을 보면 생활을 인정치 않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생협은 처음에는 투쟁적 조직이었으나 최근 몇 년 생활은 그렇지 못했다. 생활은 반드시 학단문제에 책임을 지어야 한다. 식수위원회 부족해서 짚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것은 10년간 반복된 말이다. 이런 개선해야 한다.

2번 윤후보가 윤후보에게 묻는다. 식단문제는 생활에 책임이 있다.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24대 총학은 식단문제에 생활을 배제했다. 총학은 식단문제를 가장 잘 아는 생활하고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알고 싸야 이긴다. 생활협 조합원이 2000명이다. 하나로 뭉쳐서 함께 싸우겠다.

1번 이재화후보(이하 이)가 2번 위원석후보(이하 위)에게 묻겠다. 연중운명을 말씀하셨다. 실현가능인가

계절학기 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학교공동화현상이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계절학기가 용인배움터에 마련된다면 가능하다.

1번 윤후보는 1113번, 원후보는 60, 20번 버스를 학내를 경유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

1번 윤: 1113번 버스 분명히 들어올 수 있다. 1113번 버스는 에버랜드로 버스타다. 끝말에는 손님이 거의 없고 주말에만 꼭 차는 형편이다. 적어도 주중에는 학내를 경유하게 만들 수 있다.

2번 윤: 화송한다. 1113번을 공약집에 빠뜨렸다.

도서관의 정보자유가 열악하다. 공약집에는 두 후보 모두 언급이 없다. 정보특공 계획이 있는가

2번 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학원자주위원회를서 추진할 것이다.

1번 이: 최소 정공서적, 교양필수까지 정보보충 하겠다. 설문지를 통해 필요한 서적이 무엇인지 파악할 것이다.



기호 1번 총후보 윤태호(정보선입금·정보통신국)

(문화예술경영)

세민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민전에 대한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해달라

2번 윤: 세민전은 중점공약으로 내세웠다. 건학 50주년을 맞이한 이번 세민전은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번 세민전은 외대 용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그동안 준비기간이 짧은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다. 30개 과 6개 단대가 모두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설문조사 시작했고 기획회의 이미 주었다. 그리고 1차 컨설팅 나온 상태이다. 무엇보다 세민전 준비위원장을 결의한 사람도 있다.

1번 윤: 세민전은 의대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하고 외대만이 할 수 있는 잔치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2년에 한번씩 개최



오고 있기 때문에 맥이 풀린다는 것과 갈수록 짚이 떨어진다라는 것이다. 건학 5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세민전 잘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 세민전 위원장을 만났다. 세민전의 주체는 총학이 아니다. 각과에서 준비하고 총학은 세민전 준비위원회를 도와줄 것이다.

(사회정치영역)

운동권과 비운동권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번 윤: 현재 총학에서 이야기하는 비운동권과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비운동은 다르다. 총학이 말하는 비운동은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반론이지

만, 학생들이 느끼는 비운동은 학내사안운이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비운동이라고 한 적은 없다. 굳이 말한다면 우리는 '아들권'이다. 당연히 알리는 것이 우선이다. 역시 총투표를 통해 묻고 싶었다는 것이다. 정치적 견해 당연히 있다. 하지만 학생들을 설득하거나 강요하지 않겠다.

2번 윤: 누가 먼저 운동권, 비운동권 이야기했는가? 그렇게 나누면서 어떻게 7000학생을 아우르겠다는 것이지 의문이 든다.

김용훈 기자

cedae01@hanmail.net

용인배움터 정견토론회 이모저모

지난 20일(목) 용인배움터 후북관 식당에서 언론협의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25대 총학생회 후보자 합동 정견토론회'가 열렸다. 하지만, 후보 부족으로 많은 학생을 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정견토론회를 처음 본다는 김은하(동학·이프리카) 03)장은 "정견토론회는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우리학교에서 진행해 신기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알게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매년 참석했다는 99학번의 한 남학생은 "이번 정견토론회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지 의문"이라며 정견토론회를 마련하기 전 학생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은 후보에게서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

패널로 참석했던 교직원협의회 박혜진(서유림·이태리) 03)장은 "반자 뜻있는 경향이 있고 후보들의 솔직히 특 터놓는 얘기를 가까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며 "정견토론회가 진행되면서 공약적인 이조가 계속해서 나왔고,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토론이 끝난 후 기호 1번 총학생회 후보 윤태호(정보선입금·정보통신국) 06)군은 "이런 자리에 처음으로 참석하고 내용도 많은 것을 배웠다"며 "정견토론회의 진행과정에서 기성정치인의 모습으로 비춰진 것 같아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기호 2번 총학생회 후보 원종관(서유림·영아) 06)군은 "정견토론회가 제대로 진행된 것 인지가 아직도 의문스럽다"며 "정견토론회에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구체적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남겼다. 2. 후보와 사회를 맡았던 언론협의회 의장 문은주(서유림·이태리) 00)장은 "정견토론회가 처음 예상했던 시작시간보다 많이 늦어졌다"며 "토론회에서 각 후보는 중요사안에 대한 방향은 제시했으나 세부적인 방안이 달라서 긴장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은희 기자 pih206@hanmail.net

민중생존권 보장! 전대기반 공동투쟁



농산물

개방 압력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농민들.

정부의 손바·가압류로 인해 월 50만원 반대로 노동공적으로

매도 당하는 나라.

대박없는 노점상 단속과 빈민 생존권 유린이 판치는 세상.

노무현 정권이 참여정부 문호하며 민중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게 해서는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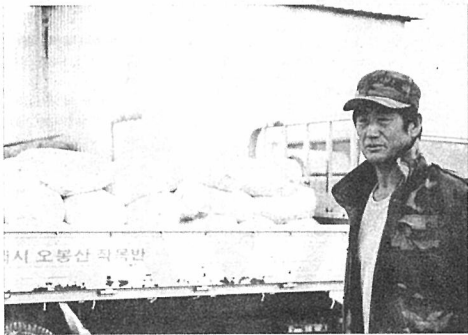
전국대학생문거지연은 한참에 FTA체결때만·노동단일 중단

민중생존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가상 시나리오 - 농민의 아들이 본 우리 농촌 현실

“왜 정직한 농사꾼이 빚쟁이가 돼야 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나이는 열네살. 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경상남도 거창은 다른 곳과 달리 여름에도 시원한 지역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나는 우리의 생명이야. 벼를 키우는 건 저지 키우려는 온 마을을 대해야 하는 거야”라고 늘 말씀하세요. 전 아버지, 어머니께 “도사에 가자”고 자주 졸랐어요. 늘 1년 내내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늘 가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나는 천성이 농사꾼이다. 나나 너의 어머니 할 일은 이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눈물이 많으세요. 작년에 올에도 어머니는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열심히 기른 벼추수를 얻으신 어머니

우리 집은 벼농사를 주로 하고요. 벼추할 때도 농사에 지어요. 어머니는 작년 6월에 탈스탑 게 자란 벼추를 그날 밤에 다시 문으셨어요. 건 어머니께서 열심히 가꾸신 벼추를 왜 다시

판에 묻는지 이해가 잘 안됐어요. 어머니는 “판이도 농작물, 비료값도 안 아까. 처리할 판을 얻는게 나”라고 한숨을 쉬셨어요. 전 어머니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열심히 가꾼 벼추를 판이도 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일본 내지는 농사가 헛것이 되다...

작년에도 올에도 일본 내지 벼는 벼농사가 헛것이 됐어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좀처럼 보기 힘든 큰 태풍이 와서 우리 마을에도 일주일 이 넘게 많은 비가 내렸어요. 비닐하우스가 다 찢기고 논밭이 다 때려눕혔어요. 부모님은 밤잠도 못 주무시고 어떻게든 피해를 줄여보겠다고 이리 저리 뛰어다녔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부모님이 1년 내내 자식처럼 키운 벼가 빚도 농작물에 잡혀버렸죠. 그 해 벼를 수확할 때 술을 잡수시고 온 아버지는 “어떻게 키운 건데...” 하시며 크게 우셨어요. 보고 있던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올해에도. 한참 벼가 지리하려는 여름에 비

가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어떻게든 물을 구하러 뛰어다녔지만 아무 소용없었죠. 부모님이 힘들게 키우신 벼는 논에서 새까맣게 타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 집은 가을에 벼를 수확할 수 없었어요.

정부에서 준 보조금 10만원

우리 부모님은 늘 이렇게 힘들어하시는데 대동원아버지는 뭐하시는건지 모르겠어요. 작년 태풍에 우리 집이 본 피해만도 300만원도 넘는 데 나라에서 준 보조금은 10만원뿐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정부에서 키우려고 하는 작물은 절대 키우면 안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올해 우리 집은 벼추 포도를 키웠어요. 아버지는 정부에서 키우려는 포도 종자를 가지고 오셨어요. 8월이 되어 어머니께서 밤 출리며 키우신 포도를 수확했어요. 어머니는 포도의 값이 아주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고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돌아오신 어머니는 “포도가 틀렸어”라며 아버지를 붙잡고 한참이 우셨어요. 나라에서 포도를 키우려고 이곳저곳에 너무 많이 권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빚만 늘어가는 우리집

작년처럼 올해 지은 농사가 다 헛것이 되어 버려서 우리 집은 빚이 6천만원이나 된대요. 작년에는 트랙터랑 콤팩트를 사드리고 3천만 원을 빌리고요. 올해는 새로 벼 종자랑 벼추 종자를 사드리고 3천만 원을 신용협동조합에서 빌렸어요. 어머니는 요즘 “어떻게 이 빚을 다 갚냐”고 고민하시느라 밤잠도 못 주무세요.

빚에 쫓돌려 농작물 아닌 이웃집 아저씨

얼마 전 우리 마을에는 아저씨 한 분이 농작물을 드시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신 영화네 아저씨는 지난해 벼추 농사가 잘 되지 않아 빌린 돈 5천만 원을 값을 같이 얻으셨어요. 마을 아저씨들은 영화네 옆집 온종일 아저씨가 영화네

아저씨 빚까지 다 갚아야 된대요 걱정하셨어요.

전 우리 부모님도 농작물 드시면 어쩐지 걱정이 돼서 어머니께 “어머니는 농작물 드시면 안돼요”라고 말씀 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죽겠냐? 내가 있는데...”라며 눈물만 글썽하셨어요. 다음 날 온종일 아저씨는 결국 도망 가셨어요. 우리 마을 이장님은 “한 평생 땅만 바라보는 농사꾼들이 왜 빚쟁이가 되어야하는 모르겠어. 우리처럼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있다고... 하들도 무심하지” 하시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셨어요.

농산물 개방에 신음하는 농민

모네기로 한참 5월에 서울에서 대학생 형, 누나들이 우리 마을에 온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일본이 부록한테 참 잘했구나” 하시며 좋아하셨어요. 서울은 어떤 곳인가? 전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아버지는 최근 들어 자주 서울에 가세요. 아버지는 그 때마다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과일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을 꼭 막아야해. 외국에서 값이 싼 과일같은 것이 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나라 죽는 것이 아니라고 시랑들도 죽어. 당장은 농산물이 팔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허업없이 비벼들텐데...”라고 말씀하셨어요.

웃는 부모님 얼굴이 보고싶어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는 것을 꼭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몇 정지하게 사는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날이 있으면 좋겠어요. 되도록 빨리요.

김현지 기자
oedaexpress03@hanmail.net

2003 여름 농산물대장에게 들어보는 우리 농촌과 WTO 이야기

“수입 농산물 개방, 농민에겐 죽음과 같아요”



서양대 농산물대장 소효원(노어 1)

“1학년 때 농장을 갔었어요. 비닐하우스에 농민분들 따라 들어갔는데 딸기가 탈스탑게 열려있었어요. 그 농민분은 딸기를 많이 따먹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딸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죠. 다음날 그 농민분은 그 딸기를 얻으셨어요. 딸기밭자 손에 쥐는 것이 없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그 때 만 다른 분은 가지고 계신 땅에서 딸 수 있는 수일이 300만 원인데 비료값과 농약값을 제외하면 정작 손에 쥐는 것은 10만 원이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농촌 현실에 WTO 개방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해요. WTO를 지지하는 것은 온 농민들에게 목숨을 내 놓으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사범대 농산물대장 박근혜(영어교육 01)



사회대 농산물대장 이우석(신문방송 01)

“농민대회를 갔을때 농민들은 굉장히 활사적이었어요. 이경애 열사의 자절이후에 농민들의 심정은 더 참다하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버림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WTO 나 한-칠레 무역협정(FTA)은 본질적으로 같죠. FTA는 WTO를 이루기 위한 단계예요. WTO를 세계화하고 흔하디 흔하잖아요. 하지만 세계화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몇몇의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WTO는 이러한 전쟁과 같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이들에게 이번 FTA가 본인이 곧 죽음과 같다는 거죠.”

김현지 기자 oedaexpress03@hanmail.net

현정취재 - 우리 농민 사수·쌀 지키기·농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11·19 전국 농민대회

10만 농민 함께 외친 “우리 농업 지키자”

지난 10일(수) 오후 4시 여의도의 대회의장에서 ‘우리 농업사수·쌀 지키기·농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11·19 전국농민대회’가 열렸다. 전국 농민연대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 WTO/DDA(도하 개발 협정) 농업협상 반대·탈개발 반대 △사립주권화반대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 △FTA(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중단 및 DDA 농업협상 이후 제 논의를 농업관련 10대 요구안을 발표하는 등 본 대회는 개최선언과 전국농민연대 송남수

상임대표의 대회사로 시작됐다. 송남수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오늘 농민 대대행은 농민의 문제를 농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신감과 의지의 표현이다”며 이번 대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무대에 오른 전국농민회총연맹 정현찬의장은 “조국적 자본, 다국적 곡물상의 이익을 대변하는 WTO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WTO를 강력히 비판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본 대회는 결의문 채택과 WTO, FTA, 농가부채,

농업중앙회가 새겨진 대대행방을 태우는 상징의식을 끝을 맺었다.

본 행사를 마친 농민들은 마포대교와 국회로 각각 행진했다. 국회로 진출하려는 농민들은 국회 내게내에서 물대포를 동원한 경찰의 진압에 다수가 부상을 당했다. 또한 마포대교를 거쳐 행진하던 농민들과 경찰의 격렬한 충돌이 있었다. 경찰은 이날 농민들을 잡기위해 무력으로 총 8명상을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농민들은 “10만 농민은 여의도 광장에서 노

숙을 하고 내일 아침 한-칠레 무역협정 국회 심정에 청상한 8명 의원들 함의 방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회의에서도 만 여명의 농민들이 대회를 진행했으며 오후 4시경 본 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총로 37개 중요공약까지 처리행진을 진행했다.

전대기공동기자단
정리 : 김현지 기자
oedaexpress03@hanmail.net

한국대학신문 선정 전국대학평가대상 우수
“다 읽고 싶은 외국어학원” - 1위

TOEIC, 만점 강사한테 배워야 만점받는다!

전국 최대 TOEIC 전문 Clinic/ 전국 최대 수강생/ 2003년 최대 만점 강사

71명의 TOEIC 최고 전문가들이 “답”이 아닌 “유형”을 가르친다!

지겹도록 오르지 않는 TOEIC 점수, 언제쯤 손에 잡힐까요? 수강생 여러분의 TOEIC 점수 사냥에 파고다가 이 한 몸 바칩니다.
2003년도 최대 TOEIC 만점 강사들이 매일 출제되는 시험문제를 유형별로 철저하게 분석해 TOEIC 점수 사냥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 드립니다.

Event

12월 수강생에게 드리는 6가지 방방한 혜택

- * 취업 무료특강 (영어 면접 및 프레젠테이션) 신청은 참석
- 12월 6일(토) 수련: 한강 나스/ 주말: 한강계정서
- * 장학금 100원 반/ TOEIC, TOEFL, TEPS 고득점자 모여!
- * 2004년 스케줄 달력 신청은 12월 12일 (토)까지
- * nPagoda 경영상장 20% 할인 혜택 (12월 12일)
- * 수습 수습생 10% 할인 쿠폰 제공 (12월 12일) / 수습료 지원
- * 수습 수습생이 nPagoda 수강시 안 과목 더 무료 수강 (수습료 지원)

Bestseller TOEIC 교재 (저자 직판)

Mega TOEIC	Mega TOEIC plus	Max TOEIC	Summit Actual TOEIC	My First TOEIC	TOEIC 기출문제
U/C: 김철수 저	U/C: 김철수 저	U/C: 정현찬 저	U/C: 홍수환 저	U/C: 박성욱 저	U/C: 이재현 저

파고다 TOEIC Clinic
대표 회장 조종태 / 대표 강사 김경철

12월 1일 개강 - Pagoda21.com

인터넷으로 등록시 5% (책 12% 할인 + 3% 적립)

다들 영어 잘하고 고득점 11명 어휘만 전문 그램

다이렉트 잉글리쉬
대표전화 02-594-0286-7

파고다 사아비 학원
www.pagoda.com
등록번호 02-3434-4000

외대학보 841호 비평

열심을 다했지만 미숙했던 841호



저를이러는 것을 알리는 듯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는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다. 선거주체로 아홉이다 "안녕하세요. 기호 0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구호가 캠퍼스 전체에 울려 퍼진다.

지난 841호 주제가에서는 각 후보별로 찬미와 변을 인터넷으로 후보를 밀착 취재하는 기획을 다뤘다. 후보와 하루 동안 함께 활동 하면서 보충학생과 똑같이 장난치는 모습과 수업에 몰두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총학생회장 후보는 일반학생이라 다르지 않았다. 반면 다른 기자는 "선거기간동안 쉬지 않고 학생들을 만나러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책임적으로 강하다는 것과, 자신을 지지해 주지 않는 학생을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보여주는 모습은 대단했다"며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이번 주제가에 대해 "기획은 좋았으나 각 후보들의 차이점이 제대로 들어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했다. 반면 밀착취재기사에 대해서는 "선거를 잘 모르는 학생에게도 쉽게 후보자들의 생각에 공감을 가질 수 있었던 기획이어서 좋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 5년 주제가하면서 두 후보의 인터뷰기사에서 흐름이 매끄럽지 못한 것과 광고부분에서도 잘못된 표어가 들어간 미숙한 점을 보였다.

2면에 실린 외대일보에 대한 기사에 대해 "외대일보 수거에 대한 정당성과 외대일보에 대한 여러 학우들의 목소리를 실어준 이 보도기사에 공감한다"고 다수의 학생들이 전했다. 외대문학상·학술상에 대한 8면 문화면에 대해 "기사가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외대문학상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던 점이 아쉬웠는데 이번 기사를 통해 자세히 알게 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학우들의 목소리를 찾아준 이 보도기사에 공감한다"고 다수의 학생들이 전했다. 외대문학상·학술상에 대한 8면 문화면에 대해 "기사가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외대문학상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던 점이 아쉬웠는데 이번 기사를 통해 자세히 알게 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언제나 완벽한 신문을 만들고자 모든 기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호에서도 신문이 발행되고 난 이후에는 조판할 때에 찾아 볼 수 없었던 오류를 볼 수 있었다. 외대학보는 주로 날씨에 대해 외대의 따뜻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뛸 것을 약속드린다.

박은희 기자
peh1206@hanmail.net

후배의 소리

누구를 위한 담뱃값 인상?

요즘 언론에서는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차츰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보도한다. 또 얼마 전에는 내년 담뱃값을 7월부터 500원씩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신문을 읽었다.

현재 신문은 60.9%인 성인 남성 흡연율이 선진국 수준인 30%로 떨어질 때까지 매년 500원씩 담뱃값을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신문을 보면서 정부에서 내세운 목적이 과연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있는 지 의구심이 들었다. 담배를 국가에서 판매해 수익을 얻어내면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국가에서 발표한처럼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한다면 완전히 봉쇄한 담배를 팔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담배는 중독성이 있다. 그래서 기적을 올려도 소비자는 '둘레 겨자 먹기' 식으로 담배를 소비할 수 밖에 없다는 걸 정부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또 정부에서 담뱃값 인상을 생긴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기적을 올려도 하는 것에도 의문이 든다. 일반국민의 생각으로 기업이 이익을 얻어서 그 결과를 사회에 환원한다 한다면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예를 들어 마일리지카드나 포인트 제도, 회원 제품 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소비를 한 대상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제도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실시하겠다는 사회 환원 방식은 담뱃값 인상 분 50% 중 절반인 50%를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담배 소비세(25.7%)와 지방교육세(12.8%) 부가기(12.8%) 연초안

글을 받습니다
지적: 위대(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제한 없음 / 매수: 200자 원고지 4매 내외 / 마감: 학주 금요일 지정
투고방법: 학부(지정) 학생(학생) 2명 이상 또는 전지우원 oodapress@hanmail.net
외대학보에 실리고 글감하는 부분은 비하는 점을 해명하면 논의로 비변해 주십시오.
기고하신 본지는 소정제 원고료를 드립니다.
출신(H&S)은: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2003년 11월 24일 발행

선거, 의견반영의 창구

"언제쯤 하십니까? 저는..."
요즘 교정을 거닐다 보면 이러한 소리와 함께 게시판이나 벽에 수북이 붙여진 많은 대자보와 홍보용 팸플릿들을 볼 수 있다.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조금만 눈여겨보면 이것들이 모두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시기는 각 단과대학이나 과별로 다음연도에 중임을 맡는 책임자를 뽑는 시기이다. 한창 진행 중인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시기가 다가올수록 학우들에게 선거를 권유하고 부하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텔레비전에서는 매년 '선거'를 할 때 출연자들은 모두들 자신에게 1표를 달라고 하지만, 선거에 꼭 참여해야 하는 말을 많이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의의소속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선거로 인해 우리가 원하는 책임자를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선거의 의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이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는 동양대학 중추와 재학생들이, 벌써 2년의 선거를 치렀다. 동양대에 학생회장선거와 과별장 선거가 바로 그것이다. 동양대의 경우 30% 학과와 50%의 선거권이 나오지 않으면 투표결과에 관계없이 선거자체가 무효가 되는 회칙을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동양대의 39% 중추에서 57%의 투표율로 겨우 선거가 진행됐다. 물론 선거에는 도달한 것일 지라도 선거가 진행된 것은 다양한 일이지만, 이것이 아슬아슬한 여건에 수렴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박성우
(동양·중추 03)

여대 그들의 덕을 보고 추방시키는 것은 옳지 못해!

- 바른 소리 -

- 살길도 열여섯이고 알고 무조건 막아 버리는 것이 인간이 할 것인가? -애국주의자-
- 이세 30대중년이 누가 일을 할꼬?... 격정이다 격정 -격정학자-
- 그들이 과연 인간으로 대접을 받았던가? -T.T-
- 이세 저우 자리잡는 사람들을 바로 찾아라! -불평-
- 국회의원이냐 추방해라! -윤인-
-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물던 말 "도끼가 살자" -바른 생활 사나이-
- 당연히 추방해야지 여서 나가라! -조선일보-
- 집중도 자기를 돕는 사람은 알아본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중만도 못하냐? -비관-
- 많은 일이 시키고 다쳐도 병원에 안보내주면서 이세는 찾아내 기까지 하나... -휴--
- 누구를 위한 법인가? 사람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이 맞지 않나? -법학도-
- 그들이 못나서 대한민국을 어렵게 생각할까? -총계 생각한 않겠지-

수당



유의영
(외국문화협력연구센터 연구교수)

1998년 법안을 마련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재외동포법이 외국인 불법 노동자 강제 추방과 맞물리며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1998년 8월 정부는 재외동포법에 국내 거주 국민들과 거의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해야

법안을 마련했다. 활동주의에 입각해 '한민족 혈통으로 외국 시민권을 가진 동포'라면 국내에서 부당권을 가해하고 외부보급, 연금에 가입하는 등 내국인과 함께 대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과정에 중국 정부와 협의에 따라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범위를 제한했다. 해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해외로 나간 사람을 동포의 대상으로 제외된 것이다. 시민, 종교 단체들은 그동안 이같이 한민족 평등권 침해는 물론 입시정당의 범용을 계속한다는 헌법 전문의 취지도 외면하며 전면 수정을 요구 해 왔었다.

2001년 11월 한민족법안도 정부 수립 이전에 외국으로 이주한 동포를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의 정도가 적정

피해 이주했고 이후에도 국외에서 독립운동에 전개했던 이들의 후손이다. 더구나 이들은 자의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해외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도 있다. 이들은 1982년 5월 11일 공포된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와 '제한한법 부칙 10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의 경우, 한국정부는 1992년 한중(韓中) 수교 당시 이들의 국적에 관한 합의사항을 도외시키고 수교 후 귀환하며 허용한 일이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중국국민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체제는 근절해야한다. 하지만 강제적인 단속이 아닌 자발적인 신고요에 할 것이다. 재외동포법의 현실적인 보완은 '신입 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루어야 한다. 또한 법적, 현실적 문제에 앞서 우리는 지난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70년간이나 잊혀져 있었던 동포들과의 시간의 간극을 이세는 모국에 보내야 적극적인 노력으로 마무리 노력해야만 하지 않겠는가?

★ MyNetplus 출시기념 ★

YOUNG POWER RALLY

주식실연투자 수익률 제고대회

앨리의 승자가 인생의 승자가 될 것이다!

앨리만, 지금 도전하십시오. 이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젊은이들! 살면서 강한 강자로 거듭나는 무대 - 살면서 대인관계에 대해...

MyNetplus 파워플러스

★ 장성한 승자로 떠오를 젊은이의 기회!

1. 대회기간: 2월 28일~2004년 1월 30일 (8주간) 2. 참가대상: 1월 24일~1월 25일 (8주간)
3. 대회 구분 및 참가자격: 개인전 2개 (1월 24일, 25일), 단체전 1개 (1월 24일~25일)로 나누어 진행

구분	개인전	단체전	총합
1위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위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3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Full Round 9월 2주 Round 2 (1월 24일~25일)
★ Full Round: 1월 24일~25일 2주 Round 2 (1월 24일~25일) ★ Two Weeks Round: 1월 24일~25일 2주 Round 2 (1월 24일~25일)

2. 취업 특전

- 개인전 1~3위 입상자: 3월 15일까지 취업 지원금 100만원
- 개인전 4~6위 입상자: 3월 15일까지 취업 지원금 50만원
- 개인전 7~10위 입상자: 3월 15일까지 취업 지원금 30만원
- 개인전 11~15위 입상자: 3월 15일까지 취업 지원금 20만원
- 개인전 16~20위 입상자: 3월 15일까지 취업 지원금 10만원

★ 취업의 특전과 푸짐한 상금이 걸린 일생일대의 기회

1. 상금 및 특전

구분	개인전	단체전	총합
1위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위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3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Full Round 9월 2주 Round 2 (1월 24일~25일)
★ Full Round: 1월 24일~25일 2주 Round 2 (1월 24일~25일) ★ Two Weeks Round: 1월 24일~25일 2주 Round 2 (1월 24일~25일)

2. 취업 특전

- 개인전 1~3위 입상자: 3월 15일까지 취업 지원금 100만원
- 개인전 4~6위 입상자: 3월 15일까지 취업 지원금 50만원
- 개인전 7~10위 입상자: 3월 15일까지 취업 지원금 30만원
- 개인전 11~15위 입상자: 3월 15일까지 취업 지원금 20만원
- 개인전 16~20위 입상자: 3월 15일까지 취업 지원금 10만원

취업을 통해 본 외모지상주의

취업=학점+자격증+α... 외모

"해해해! 뭘 생각하든 잘난 척하는 척이라도 내 얼굴 정도는 패이지!" 요즘 인기 급상승중인 일명 '육동자' 개그맨 정동철씨의 유행어다. 정 씨는 흔히 말하는 '못 생긴 얼굴'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며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씁쓸함이 남는 것은 왜 일까? 우리사회가 만들어 놓은 일명 '잘 생긴 얼굴'에서 벗어난 자신의 외모를 회화하듯 대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사회의 외모지상주의가 광배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외모지상주의'는 단순히 TV나 온라인 상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만은 아니다. 이것은 대학생활 사이에서도 문제 되고 있고 특히, 졸업이 가까워 오는 해엔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최동현(상경·경제 06)군은 "기업에서 사원을 뽑을 때 지원자의 외모를 보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자들도 외모로 평가 받는 사람은 자났다고 생각한다. 외모보다는 실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취업 준비생 이 모(사유림·영어 09)장은 "아무래도 남성은 능력에 중심으로 보고 여성은 외모를 많이 보는 것 같다"며 "서류전형의 경우 사진이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사진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취업을 위해서는 학점관리나 자격증 취득 외에도 외모까지 신경 써야하는 현실에 직면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해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도 급격히 늘고 있다. 이와 관련 서 모(사양·독일어)군은 "외모도 경쟁력이다. 외모의 어느 한 부분이 취업을 막는다면 성형수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주)대우자동차 인사관리부담당 오상근씨는

"지원자들의 외모가 당락을 좌우하지 않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기업이미지를 위해서 좋은 인상을 가진 지원자를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취업 때문에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학교 서울메이커 취업정보센터 주임 안상덕씨는 "취업을 위해 성형수술을 한다거나 외모에 투자하는 것을 학생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대부분 기업측에서 지원자의 외모를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기업측 입장에 대해 송예민(동화·미인어 09)은 "외모가 면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회사측이나, 지원자측이나 이미 압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외모'라는 말을 '이미지'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결국 사원을 채용할 때 외모를 본다는 말로 기업에 맞는 이미지를 원하는다는 말로 합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나라에 광배한 외모지상주의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얼마 전 조 신문에서는 '못생긴 여자 컷터'를 실시하며 외모지상주의를 풍자하는 기사가 실려 화제가 됐다. 인사 담당자들이 직원 채용을 할 때 80%가 인물을 고려한다는 현실을 비판하는 이 기사를 보며 취업준비생들은 이미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오늘도 취업을 준비하는 여학생들은 몸에 붙지 않는 바스킹 재킷에 YF 라인의 스커트를 입고 무늬가 없는 갈색계열의 스타킹을 신은 채 면접장으로 향할 것이다.

조혜원 기자
mutate84@hanmail.net



머리
긴 머리는 뒤로 묶는 것이 깔끔하고
머리가 눈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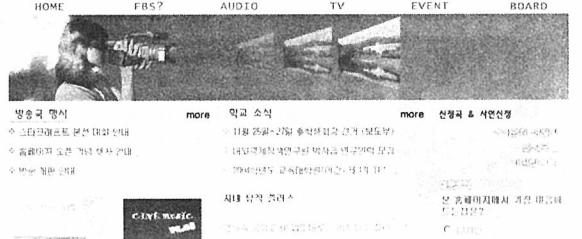
화장
자연스럽고 밝은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상
검정이나 회색의 단정한 스커트 투
피스 정장이 무난하다.

구두·스타킹
높은 구두의 굽은 피하고 갈색계열
의 스타킹이 신는 것이 좋다.

인터넷으로 새롭게 접하는 FBS

FBS



아래 길거리를 걸으면서 '돌리는 방송'이 아닌 의자에 앉아서 '돌리는 방송'이다라고 용인메이커 FBS방송국 홈페이지 개국에 대해 실무국장 김소연(사유림·독일어 01)장은 전했다.

등하교길, 점심시간 등에 늘 친구처럼 했던 FBS방송국이 지난 11월(화)에 인터넷 공간을 열었다. 이제는 듣고 싶은 방송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 됐다. 홈페이지 개국 당일 날에는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축하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 안에서는 방송국 국원들과 학생회 간담회를 모아서 홈페이지의 개국을 인정받는 자리를 만들고 밖으로는 많은 학생들에게 홈페이지를 널리 알리는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에는 처음 실시한 본선개임을 겸한 '스타크래프트 대회', 다카를 이용해 학생들이 직접 투표하는 형식의 '얼짱 뽑기 대회', 자유게시판 활성화화를 위한 '11번째 글 쓰기 주인공을 찾아라' 등이 진행되어 많은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송국 홈페이지의 취지를 살렸다.

홈페이지(www.fbs.or.kr)를 들어가보면 맑고 푸른 하늘 배경에 카메라를 한 국원이 '여기는 외대인의 소리 외대교양방송국입니다. FBS 라라 방송을 환영합니다. 물론만 하면 영화의 생생한 감동을 전해주는 '시네마 라디오', 생애한 월요일 아침에 맛있는 영화 얘기로 열어 가는 '아침의 산책' 등의 오디오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다. 또 내 입맛에 맞는 영화 속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시네 뮤직 클러스', 지금껏 무심하게 지나쳤던 영화 속 뒷 이야기

기의 'In Kino'에서 재밌게 볼드립다' 등의 영상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난 기요제와 방송제 행사를 다시 감상할 수 있다.

자유게시판을 통해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시경의 차마를 신중합니다. 신창 사연은 교양 수업을 같이 듣는 사람중에 영어과 03학번 000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는 잘 모르구요. 이번 배배로 데이에 주려고 배배로까지 있는데 얼마전 남자 친구가 생겼는데 소식을 듣고 차마 전해주지 못했네요. 안타깝지만 사람을 찾은 그녀를 축하해 주고 싶어서 신중합니다. 급요알이나 다음주 월요일 점심시간에 돌아주셨음 좋겠습니다'라는 차은아님의 사연처럼 사진과 함께 신창곡을 신중하는 것도 있다. 이 곳은 이와 같은 사연고백이나 다르고 난 뒤의 사과의 말 한마디 등을 올릴 수 있는 외대인들의 알뜰한포옹 산하기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실무국장 김양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고, 아직도 미디어 서버는 학교 시청각교 육원 서버를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생방송이 안되는 상태이다"라고 방송국 내에 인터넷 방송을 위한 체계가 될 잡데 지금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다양한 미디어 자료를 통한 콘텐츠 승부를 할 것'이라며, 이벤트를 자주 가지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FBS방송국이 될 것이다"며 굳은 의지를 밝혔다.

박은희 기자 pehi206@hanmail.net

학회를 찾아서 8

서울메이커 불어과 상송학회 '해조낭성'

달콤한 상송과 함께하는 사람들



"상송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서울메이커 불어과 상송학회 '해조낭성(Haeso-nang-sung)' 학회

장 고민준(사양·불어 02)군의 말이다. 우리말로 '올림'이라는 뜻을 가진 '해조낭성'은 1992년 처음 만들어져 올림 11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김아름(02)장은 "올해만 해도 외부공연을 10번이나 할 정도로 유명해요. 상송학회하면 당연히 '해조낭성'이죠"라고 웃으며 말했다. 또한 그녀는 "불어와 상송을 통해 서로 친목을 다진 뒤에 신·후배간의 정도 돈독해요. 함께 있으면 재밌어요"라고 덧붙였다. 상송에 대한 열정과 서로간의 우정이 그 어느 학회보다 두터운 그들이었다.

이런 '해조낭성'이 지난 21, 22일(토) 양일간 인문과 학관 2층 대강당에서 'Newest Depart(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열인번째 정기공연을 가졌다. 학회장과

군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이번 주제는 11회 정기공연을 맞이하여 1회 공연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카라라와 화음 연주를 중심으로 4개월 동안이나 준비했어요"라고 덧붙였다. 공연을 마친 장경희(02)장은 "연습할 때는 마음처럼 잘되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공연이 잘된 것 같아 뿌듯해요"라고 말했다. 두시간 가량 이어졌던 그들의 공연은 때로는 어깨를 들썩이게 하고, 때로는 슬픈 사람노래로 관객들의 가슴을 촉촉이 적시기도 했다. 상송과 사랑이 있는 곳 '해조낭성'이다.

조혜원 기자
mutate84@hanmail.net

우리말 이야기

양치질·요지

'양치질'의 어원을 아시나요? 언뜻 보아서 한자어인 줄은 짐작하시겠지요? 그러나 혹시 '양치질'의 '양치'를 '양치'(기름 양, 이 치나) '양치'(여친 양, 이 치)로 알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양치질'의 '치'를 '치'(이 치)로 써 놓은 사견도 보일수나, 이 사견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양치질'의 '양치'는 엄밀히 말하면 '양치질' 즉 '양치'(버드나무 가지에 잡아서 인 '질'이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라고 한다면 믿으셨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려 시대의 문헌(예컨대 『계림유서』)에도 '양지'(버들 양, 가지 지)로 나타나고 그 이후의 한글 문헌에서도 '양지질'로 나타나고 있는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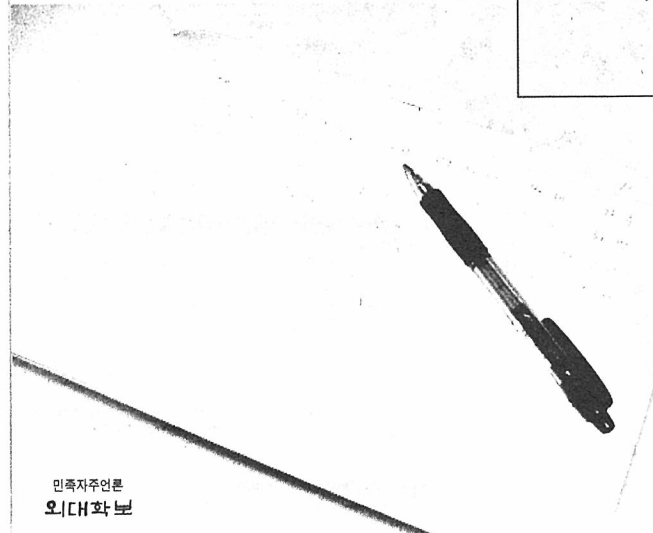
'양지' 즉 '버드나무 가지'로 '이'를 청소하는 것이

옛날에 '이'를 청소하는 방법이었습니. 오늘날 '이'를 '우시개'를 쓰듯이, 소독이 된다고 하는 버드나무 가지를 잘게 잘라 사용했던 것입니. 그래서 '이'를 청소하는 것을 '양지질'이라고 했던 것입니. 이에 대한 원의 의식이 점차로 희박해지면서 이질을 '이'의 한자 변한 것입니. 19세기에 와서 이러한 변화를 겪었습니. 이 '양지'는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어인 '요지'로 변했습니. '이우시개'를 일본어로 '요지'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 아직도 우리 나라 사람들 중 '이우시개'를 '요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앞으로 고쳐써야 할 말입니.

- 우리말 연구회

노벨 문학상은 존쿠체,

외대 문학·학술상은 바로 너!



문학상 시(3편 이상)·소설·수필
희곡 평론 분야
학술상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 등
마 감 2003년 12월 31일(수)
상 금 총 200만원, 각각 100만원
문의 서울 02-961-4152
용인 031-330-4112
E-mail oedaepress@hanmail.net
유익사람 심사용·보관용 2부씩 제출